

헤인만

2010 겨울호

Haein Membership Magazine Vol. 265



섬 없이 땅을 고르는 진동롤러가 지나가면
자갈과 모래로 뒤덮인 울퉁불퉁한 길이
어느새 보기 좋게 평평해집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날은 어찌면
우리 삶에서 울퉁불퉁한 길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추운 겨울, 생동하는 봄을 맞을 준비를 하듯
내 마음 속의 진동롤러를 열심히 굴러
단단한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거친 땅 표면을 고르게, 견고하게 다져주는 진동롤러.

움츠러들기 쉬운 이 겨울, 헤인만의 진동롤러를 열심히 굴러

생동하는 봄을 준비하듯 작업 현장도, 삶의 기반도 탄탄하게 다져 나갑니다.

창립 50주년, 혁신을 거듭하는 헤인인이 ‘NEW HAEIN’의 원동력입니다.

친애하는 헤인인 여러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맥내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의 곳곳에서 헤인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애써 주신 임직원 및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헤인이 창립 50돌을 맞이하는 경인년 새해는 헤인인에게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올 한 해는 그간 한국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서 경제개발계획과 국가기간산업을 토대로 성장해 온 헤인의 지난 50년간의 발자취를 거울삼아 도전과 혁신을 통해 창립 100주년을 향한 활기찬 내일을 설계하는 ‘NEW HAEIN’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비의 애벌레가 그 모습을 고집하는 한 결코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애벌레 스스로 껍질을 벗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나비로 탄생할 수 있듯이 우리 헤인도 혁신하고 또 혁신하지 않으면 결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100년 기업 ‘NEW HAEIN’의 본질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도전정신과 기존의 모든 틀을 깨는 혁신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는 생존 전략이며, 그 전략의 원천은 변화와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좇아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NEW HAEIN’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체가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조직 구성원인 헤인인 여러분의 의욕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식을 과감히 떨치고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라고 파이팅을 외치는 긍정적인 헤인인이 됩시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조직과 구성원들로 새롭게 탈바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헤인인 모두가 소망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인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헤인 대표이사 회장

윌경희

02	신년사
04	history 정비공장 설립과 종합중기정비업 취득의 의미
06	it people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장비사업본부
10	issue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12	good partner 우림콘크리트공업과의 20년 인연을 말하다
14	떴다! 헤인서비스 소형 캐터필라 열혈팬, 삼성그린중기
16	knowhow 효과적인 유압 계통 손상 방지법
18	hot item 퍼킨스 Tier 4 엔진, 중장비 전용 엔진오일 HERO HE-200

22	best club 스노보드 동아리 ‘설국(雪國)’
26	essay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진짜 아름다움의 힘
28	living up 삶의 공간과 사람을 치유하는 해법 Green Therapy
30	health recipe 겨울철 허리 건강 지키기

32	현장에서 한 컷 동장군을 이기는 뜨거운 열정의 현장
34	뉴스 (주)헤인 새로운 홈페이지 오픈 외
37	독자로부터
38	masterpiece 20년 세월을 함께한 빛나는 조연, 245BL

헤인인 2010_Winter Vol_265

(주)헤인 사보 통권 265호/발행일 2010년 1월 15일/등록 일자 1993년 10월 20일/등록번호 바-2006호/발행처 (주)헤인, 02·3498·4500(www.haein.com)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발행인 겸 편집인 원경희/기획 (주)헤인 사보편집실, 02·3498·4634/제작 디자인신화 02·324·6852 기획 편집 유은혜, 최수진, 김민선 디자인 홍현정, 김보경 표지 캘리그라피 & 그림 이상현 사진 마루스튜디오/인쇄 삼화인쇄

· 본지에 게재된 글은 발행처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주)헤인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Hae In

헤인미니사사



정비공장 설립과 종합중기정비업 취득의 의미 수요자의 마음을 얻는 공급의 기술이 빛나다

1970년대는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 시기였다. 새로운 길을 닦고, 황무지를 황금의 땅으로 만드는 등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이러한 경제 발전의 다양한 현장에는 헤인이 있었고,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는 헤안에서 비롯된 서비스가 눈에 띄었다. 안양정비공장 설립과 제1호 종합중기정비업 취득은 헤인이 왜 '서비스 모범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수요와 공급 관계에서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대두되곤 한다. 1970년대 다양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이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공급자가 얼마나 문제를 잘 풀어가는가에 따라 수요자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한다. 공급자인 헤인은 정확한 판단과 발 빠른 대응으로 수요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만약, 공급에만 급급했다면 후자의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전자의 표본을 보여준 안양정비공장 설립과 종합중기정비업 취득의 과정을 통해 '왜 헤인인가'에 대한 해답을 확인해 본다.

공급자의 기본은 앞선 판단과 실천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운동 전개와 더불어 1970년대 들어 각종 댐 건설과 개간사업 등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추진되었다. 헤인의 중기계 도입에도 가속도가 붙어 1970년대 초까지 1백여 대의 캐터필러 중기계를 도입, 공급하였다. 이 밖에도 선박용 캐터필러 증속엔진을 도입해 일본 등에서 들여온 비효율적인 저속엔진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했다. ●●● 그 러한 사업이 확대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건설 현 장이 열악해 장비들이 고장 나는 일이 잦아진 것. 물

론 보세창고를 통해 부품 공급을 하고 있었지만, 도입 장비의 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사용 기한도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헤인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 이에 따라 즉시 정비공장 설립 계획에 들어갔고, 1972년 6월 당시 행정구역상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에 있는 1만 평의 부지에 국내 최초로 중기계 전문 정비공장과 부속 보세창고를 준공하였다. 이로써 국내 건설업체나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캐터필러 중기계를 신속하면서도 저렴하게 정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다. ●●● 약 3백 평 규모로 준공된 안양정비공장에는 각종 특수장비와 정비공구들이 갖추어져 있어 캐터필러의 모든 중기계는 물론 타사 제품까지도 거뜬히 수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비들은 당시 헤인에만 유일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또한 모두 최신행 장비였기에 서비스 개시 후 국내 중기계 보유업체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헤인은 원활한 중기계 정비를 위해 선발한 20여 명의 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도 잊지 않았다. 캐터필러 본사의 교육 담당자가 내한하여 이론은 물론 정비 실무까지 꼼꼼하게 교육했다. 그리고 현장교육을 중시하여 수리 서비스를 나갈 때 캐터필러 교육자와 기술자가 동행해 사후 서비스를 펼치기도 했다. ●●● 안양정비공장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76년 6월, 건설부 제1호 종합중기정비업 허가를 취득한 것. 정부에서는 날이 증가하는 중기계 도입과

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정비업체를 심사하였는데, 최종적으로 헤인에게 종합중기정비업 허가를 내주었다. 종합중기정비업 허가를 취득한 안양정비공장은 중기계 차체는 물론 엔진까지 모두 분해, 수리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부분중기정비업 허가만을 취득한 다른 정비업체에서는 이처럼 완벽한 수리가 불가능했다. ●●● 종합중기정비업 허가 취득 후에도 완벽한 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정비공장의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터보차저(Turbocharger)의 완전한 수리를 위해 별도의 터보차저 수리실을 개설하고 특수기와 공구를 비치하였으며, 수리용 터보차저 카트리리지 키트도 다량 확보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구비했다 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 헤인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충원하여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남보다 앞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당시 헤인은 공급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수요자의 입장을 헤아렸다. 그리고 수요자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급자의 책임을 다했다. 이때, 시장 상황 전개에 대한 헤안과 과감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빠른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 안양정비공장 설립과 종합중기정비업 허가 취득은 모두 헤인의 이런 헤안과 실천에서 비롯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장비사업본부 소통의 힘으로 ‘4江 신화’ 이끈다!

여기, 해인의 또 다른 역사를 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다. 222대의 캐터필라 장비를 공급한 경부고속도로 건설 역사를 재현하겠다고 나선 장비사업본부가 그 주인공.
2010년을 경부고속도로 신화를 재현하는 해로 정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그들이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이 궁극이다.

“내가 포즈 취하는 데는 영 소질이 없는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회의실에 들어선 장병학 본부장. 하지만 촬영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분위기를 주도한다. 내친김에 이런저런 농담까지 하며 긴장감을 풀어 준다. 스스로 ‘해인에서 가장 권위 없는 본부장일 것’이라며 직원들과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임을 강조하던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과연 ‘탈 권위’를 몸소 실천하는 본부장답다.

구성원들 역시 본부장님 앞이라고 긴장하기보다는 함께 즐기는 모습에서 평소 본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부하 직원 앞에서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한없이 풀어지고, 상사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모습은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터. 이처럼 서로 격의 없이 지내는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직위 상관없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과감히 지적하는 문화는 오랜 시간 서로 노력한 끝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 같은 노력은 총 5개팀과 하나의 파트로 이뤄진 장비사업본부가 뼈격거림 없이 운영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이는 또한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고객감동을 이끈다. 장비사업본부는 오늘도 소통의 힘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 주고 있다.

장비사업본부
장병학 본부장

Paving팀
김남수 팀장

골재산업팀
류광숙 팀장

렌탈 및 중고팀
최성욱 팀장

소형장비 판매 및 임대팀
최광수 팀장

건설임대팀
백성락 팀장

한마음으로 뛰는

한 지붕 여섯 가족 장비사업본부는 골재산업팀, 건설임대팀, Paving팀, 소형장비 판매 및 임대팀, 그리고 지난해 11월 한가족이 된 렌탈 및 중고팀과 해외영업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각 산업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 장비 판매 및 지원에 초점에 맞추었던 조직을 산업별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장비사업본부에서는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추진 전략 수립부터 마케팅, 영업 관리까지 캐터필라 장비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팀은 캐터필라 장비의 발주부터 고객 배송, 그리고 현장에 특화된 장비 건설팅 및 산업 건설팅까지 담당한다. 단순 판매에서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감동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각 현장에 따른 맞춤 업무를 팀별로 살펴보자면, 우선 골재산업팀은 레미콘, 골재·석산, 폐기물 처리 등의 산업에 필요한 휠로더와 트랙로더, 굴삭기 등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제철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포스코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건설임대팀은 일반 건설업체 및 개인 임대업자

를 대상으로 굴삭기, 휠굴삭기, 불도저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M313D 휠굴삭기를 처음 도입하고 판매하기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Paving팀은 이름 그대로 도로건설 및 보수, 포장에 쓰이는 진동롤러, 소형롤러 등을 취급한다. 소형장비 판매 및 임대팀은 앞서 나온 각 산업에 필요한 소형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해외건설 프로젝트용 장비에 대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 역할을 하는 해외영업 파트는 삼부토건, 경남기업과 30여 개의 불도저, 굴삭기 등의 장비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장비사업본부의 회의시간에는 회의하면 떠오르는 딱딱할 대신 웃음이 자리한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새식구가 들어왔다. 그렇다고 그들의 업무마저 새내기 취급하는 실수를 범하진 말 것. 오랜 시간 헤인의 자회사로서 렌탈, 중고 산업 분야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유콘산업이 헤인과 합병하며 만들어진 렌탈 및 중고팀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렌탈 및 중고팀 최성욱 팀장은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온 베테랑. 여러 모로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팀이다.

시련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디딤돌 위기는 기회를 가져온다 했던가. 장비산업본부의 최근 행보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2008년 10월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장비산업본부에 직격탄을 날렸고, 장비사업본부는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다양한 위기 극복 프로그램을 통해 더 큰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2008년 말 시작된 금융위기로 지난해 초부터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외국에서 기계를 도입해 오는 사업의 특성상 장비사업본부에 치명타였습니다. 매출은 줄고, 좀처럼 경기가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고생한 고객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동고동락(同GO同樂)’ 프로그램이죠. 이를 통해 위기를 서서히 극복해갈 수 있었습니다.”

동고동락은 신 장비와 중고 장비는 물론 부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 지원부터 다양한 구매 지원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헤인은 고객 서비스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다.

유콘산업과의 합병 역시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 신 장비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고 장비 판매와 렌탈 사업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 장비 매출 증대를 꾀하기 위해 취한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사실 렌탈 및 중고팀의 이러한 성과는 새식구 환영 기념으로 남해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한다.

“첫날 축구시합 등으로 화합을 다진 후 다음 날 새벽잠을 뒤로 하고 기도까지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 효과가 좋은 절이라는 보리암에서 전 직원이 일출을 보며 좋은 성과를 기원했죠. 그 후 신기하게도 계약이 잘 되고 있으니, 진심이 하늘에도 통했나 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DLMS(Dealer Learning Management System)도 주목할 만하다. DLMS는 캐터필라 딜러 대상 이러닝(e-learning) 프로그램으로, 캐터필라 웹사이트에 접속해 장비 판매와 고객 관리 등에 대한 수업을 듣는 것. 총 30과목에서 모두 85점 이상 받아야만 이수할 수 있는데, 현재 14명이 이 과정을 통과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장비사업본부에는 지금 때 아닌 공부 열풍까지 불고 있다고 한다.



다시 쓰는 성공의 역사,

4江 신화 창조 올해 장비사업본부의 가장 큰 이슈는 4대강 정비 사업 프로젝트다. 일명 ‘제2의 경부고속도로 신화 창조 프로젝트’로 전사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헤인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의지로 전사 차원에서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그 중심에 장비사업본부가 있다. 장비사업본부원들은 일명 ‘4(대)江 신화’ 프로젝트로 2002 월드컵 4강 신화처럼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장병학 본부장은 현재 준비 중인 4대강 패키지 프로그램은 이 의지를 실현시킬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헤인과 고객 모두 윈윈(win-win)하는 최고의 프로젝트를 이끌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2009년에 동고동락이 있었다면, 2010년에는 4江 신화가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성공을 만들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입니다. ‘동고동락(同GO同樂)’처럼 ‘4江 신화’ 역시 빛나는 성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합니다.”

어려운 시기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었기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장병학 본부장. 고객과 함께하는 성장이 진정한 성장이라며 2010년 또 다른 장비사업본부의 모습으로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을 기대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시련은 더 큰 성공으로 가는 통과 의례와도 같다.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온 장비사업본부는 이 통과 의례를 잘 치러낸 셈이다. 이제 성공을 향해 달리는 일만 남았다. 그들은 오늘도 ‘불만 제로, 소통 최고!’를 외치며 힘차게 달린다. 🏃‍♂️



4江 신화 창조를 위해 장병학 본부장과 소속팀 팀장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토론한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는 헤인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난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기틀을 잡아온 헤인은 2010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보다면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작한 헤인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 1 천안서비스센터에 위치한 제2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모듈을 사용해 헤인의 영문명을 재현한 것이 인상적이다.
- 2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제1태양광 발전소. 이를 계기로 헤인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 3 헤인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에너지개발(주)의 전경.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 총회는 인간 활동에 의해 기후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기 위한 회의이다. 지난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기준으로 약 20퍼센트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GGGI)를 설립하여 녹색 성장 방법론을 제시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를 국가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보고 그간 여러 정책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신재생에너지 펀드 조성 및 관련 분야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풍력 발전기 보급 및 부품 국산화, 그린 홈 개발 및 보급,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소수력 발전 추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연료전지 및 태양광 핵심부품과 소재 국산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문제 못지않게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세운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며 “이 같은 녹색성장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한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헤인의 도약 이제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헤인은 태양광 발전, 쓰레기 매립 가스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헤인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미래에너지개발(주)의 지원에 힘입어 2MW LFG(Land Filled Gas) 발전소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이어, 2007년 (주)헤인에너지를 설립하고 전남 해남에 1MW급 규모의 제1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였고, 2009년 9월에는 천안서비스센터에 100KWP급 규모의 제2태양광발전소를 추가 설치하였다.

이제 헤인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12월 미래에너지개발(주)와 (주)헤인에너지가 함께 파워시스템사업본부 내 ‘에너지팀’을 새로이 발족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하였다. 특히, 파워시스템사업본부가 발전시스템 사업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태양광발전 및 보급 사업, 열병합을 주축으로 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이나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풍력 발전 사업 및 소재 공급 사업 등을 끊임없이 전개해 갈 계획이다. 에너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헤인이 명실상부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1 빠른 속도로 레미콘 자재를 퍼나르는 캐터필라 972H의 모습에 힘이 넘친다. 2 부품 영업 담당자인 이주오 대리가 부품 매뉴얼 북을 보며 장비 설명을 하고 있다.
3 넓은 공장 부지에 다수의 레미콘을 보유하고 있는 우림콘크리트공업. 4 우림콘크리트공업과 해인 담당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2010년에도 함께 성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신뢰 우림콘크리트공업과의 20년 인연을 말하다

오랜 친구는 인생의 자산이라는 말이 있다. 오랜 고객 또한 해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다. 얼굴 한번 붉힌 적 없을 만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해인의 20년지기 고객, 우림콘크리트공업. 조립식 건축 구조물과 레미콘 생산으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신뢰와 실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우림콘크리트공업과 해인의 인연을 소개한다.



우림콘크리트공업의 박주봉차장, 이경용기사, 서홍식기사(우측부터)는 해인의 캐터필라 장비들을 다루는 베테랑들이다.

갑작스런 추위에 사람도 기계도 뻣뻣해졌던 지난주에 비해 한결 따뜻하고 쾌청한 날씨였다. 그래서인지 우림콘크리트공업의 작업 현장에도 활기가 감돌았다. 1971년 창립한 우림콘크리트공업은 조립식 건축 구조물(시스템 PC공법) 설계 및 시공, 레미콘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중견회사다. 4만 3천㎡(약 1만 3천 평)의 넓은 공장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하남에 위치하여 우수한 레미콘을 서울 및 경기 동부지역으로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림콘크리트공업의 강점.

현장에서 우림콘크리트공업의 레미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봉 차장을 만나 우림콘크리트공업과 해인의 인연을 들을 수 있었다.

“벌써 해인과 인연을 맺은 지 20년이 다 되어 간다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캐터필라는 군대에 있을 때 도저를 사용해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입소문도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해인의 홍보 책자를 보고 연락을 드려 계약을 맺게 되었죠.”

이에 해인의 장비판매 담당 김수열 과장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캐터필라 도저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 관공서 등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귀띔했다.

한결같은 서비스 변함없는 믿음 20여 년 동안 알고 지냈으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법도 한데 두 회사 사이에는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가 없다고 한다. 한결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얼굴 붉혔던 적도 없고, 먼저 술선해서 해결해 주니 특별히 더 바랄 것도 없다는 박주봉 차장. 그렇다면 20년지기가 보는 해인은 어떨까.

“해인이 취급하는 장비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견고하며 부품 조달도 신속하고 용이합니다. 기계에 문제가 생겨 전화를 하면 정비팀이 열 일 제쳐두고 달려와 주는 점이 좋았어요. 그래도 굳이 바라는 점을 들자면, 정비팀의 인력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정도예요. 아주 가끔 여러 명이 와서 작업해야 더 빨리 끝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가 조금 아쉽죠.”

고객과의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가는 해인만의 노하우가 있을 듯도 한데, 장비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해인의 김수열 과장은 그 비결을 우림콘크리트공업의 공으로 돌렸다.

“위낙 우림에서 장비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장비라도 관리를 잘 못하면 자주 고장 나고 수명이 짧아지기 마련인데, 우림에서는 평소예 예방정비를 잘하고 작은 문제도 빨리 캐치하니까 큰 고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힘 좋은 장비를 오래 쓰게 되고 생산성도 높으니 오너들도 좋아하고 지속적인 재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낙 잔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하는 장비라 자주 구입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는 비결은 오며가며 자주 들르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과는 무슨 일을 해도 즐겁듯 해인과 우림콘크리트공업은 어느덧 판매처와 고객의 관계 이상의 친근함으로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앞으로의 바람도 지금처럼 한결같은 믿음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할 정도다. 그들의 바람대로 지금의 인연이 더 돈독해지길 바라본다. 🍀

헤인과 대리점이 만드는 최고의 서비스 소형 캐터필라 열혈팬, 삼성그린중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상호 협력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 특히나 대리점 운영체제로 이루어지는 소형장비 분야는 대리점과 본사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소형장비 고객사인 삼성그린중기, 헤인 본사와 대리점이 헤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았다.



헤가 바뀌기 전에 겨울이 왔다는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지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다. 추운 날씨와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본사 소형장비 판매 및 임대팀 김한진 사원, 서울경기지역 대리점(서경CCE) 김명준 사장, 그리고 삼성그린중기 박경원 사장이 그 현장에 모여 헤인 서비스의 이모저모를 소탈하게 풀어놓았다.

헤인은 여러 종류의 중장비를 직영으로 취급하지만 소형장비 분야는 전국에 있는 7개의 대리점이 마케팅과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본사는 대리점을 관리 및 지원하고 대리점은 판매 대행과 A/S, 고객 관리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헤인의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한다 해도 헤인의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는 제2의 헤인이나 다름없다.

“본사에서는 대리점 점주들의 의견 수렴 및 수요에 맞는 공급 물량 확보, 영업에 필요한 자료와 홍보물 등을 지원합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광고를 통해 캐터필라 장비의 우수성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대리점에서 고객들에게 제품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대리점 서비스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한진 사원은 대리점 중에서도 서경CCE는 고객과의 유대 관계가 우수한 대리점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헤인에서 20여 년간 부품 및 장비 영업을 담당했던 서경CCE의 김명준 사장은 헤인과 캐터필라 제품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실력파. 몸에 밴 헤인정신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그는 24시간 대기, 부품 완벽 구비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그이기에 서경CCE란 이름으로 독립한 지금도 여전히 헤인과 한식구로 인정받고 있다.

캐터필라처럼 강하고 힘차게

성장하는 삼성그린중기 삼성그린중기가 헤인과 계약을 맺은 지는 1년 남짓 되었지만 인연은 그보다 깊다. 서경CCE 김명준 사장과는 창업을 하기 전, 박경원 사장이 기사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터라 지금도 서로에게 각별한 사이라고 한다.

삼성그린중기는 소형장비인 256C, 236C 2대, 246C를 중심으로 각 공사 현장의 바닥 공사를 맡아 진행한다. 이미 4대의 캐터필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대 더 구입할 예정이라는 삼성그린중기. 이렇듯 짧은 시간에 승승장구 하고 있는 비결은 뭘까. 삼성그린중기가 캐터필라 장비만을 고집한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었다.

“캐터필라 장비가 워낙 힘이 좋고 고장도 없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작동하기도 편하니 작업 효율 면에서도 따라올 장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 장비들도 많이 써 봤지만 튼튼한 캐터필라 장비와 꼼꼼한 헤인의 서비스에 더 믿음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주시는 김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알아서 미리미리 챙겨주시니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헤인정신을 꾸준히 지켜봐 온 터라 믿음도 두터워졌다는 삼성그린중기 박경원 사장.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세야말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헤인만의 특별함이 아닐까. 헤인정신으로 톡톡 뭉친 본사와 대리점의 환상의 호흡이 고객 감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1 추운 날씨에도 서울경기지역 대리점 김명준 사장, 본사 소형장비 판매 및 임대팀 김한진 사원, 삼성그린중기 박경원 사장(왼쪽부터)이 환하게 웃고 있다. 2 삼성그린중기 박경원 사장과 대리점 김명준 사장이 수시로 기계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3 바닥을 파내는 삼성그린중기의 256C 모델. 파워가 강하고 고장이 적다고 박경원 사장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효과적인 유압 계통 손상 방지법 철저한 세척만이 수명 연장의 지름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 장비에 사용되는 기술 또한 발전하여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켜 왔다.

그 기술의 발전에 활용된 것이 바로 유압이다. 유압 계통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오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압력하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유체’를 뜻하는 유압. 캐터필러 장비의 유압 계통 및 구성품은 로더 및 굴삭기의 버킷을 작동하고, 트럭의 적재함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하며, 불도저의 삽날 및 리퍼를 작동시킨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의 조향 및 브레이크 작동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렇듯 유압이 다양한 장비에 사용되기까지는 많은 개발 과정이 있었다.

유압 이용 기술 개발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건설기계 현장 초기의 건설기계에서 버킷 및 삽날은 수동 또는 윈치 및 케이블 등에 의해 작동되었다. 이러한 계통은 간단하고 튼튼했지만, 느리고 조종하기가 불편했다. 1950년대에 유압식 트랙 로더 및 타이어식 휠 로더가 등장하면서 기술 및 생산성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유압식 기구들은 훨씬 빠르고 쉽게 작동되고, 케이블 컨트롤에 비해 정확한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펌프에 의해 생성되는 유량이 탱크로 회송되면서 과도한 열을 생성시키고 엔진 마력을 소모시키는 단점이 있었다.

1970년대에 개발된 유압식 굴삭기는 전적으로 유압에 의한 것이었다. 버킷, 붐 및 스틱 등을 작동시키는 펌프는 엔진에 의해 구동되고, 스윙 및 구동 계통은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방식이었다. 대형 작동기구는 대형 유압 펌프 및 높은 유압 흐름 비율을 필요로 하는데 기계적으로 작동되던 스플 밸브는 높은 유량 및 정밀한 컨트롤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장비들을 위해 파일럿으로 작동되는 유압 컨트롤 장치가 필요했다. 파일럿은 메인 흐름을 컨트롤하는 큰 컨트롤 밸브 스플의 움직임을 운전자가 작은 유압 계통을 이용해 정밀하



현대 장비에서의 유압 컨트롤 및 작동장치는 토목건축 현장에서 다양도로 사용되고 있다.

게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는 작업에 필요한 유량만을 공급하는 가변용량 펌프 사용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유압 기술의 발전은 쓸모없는 흐름으로부터 발생하는 열부하를 현저히 감소시켰고, 장비의 효율을 증가시켰다. 현재는 보다 정밀한 작동기구 컨트롤과 쉬운 작동, 생산성 향상 및 운전자의 편의성을 위해 복잡한 전자식 컨트롤과 협력하여 다양한 범위의 현대적 유압 구성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장비의 발전으로 현대의 건설기계에는 유압의 역할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오염 원인 차단으로

유압 계통 파손 방지 유압 계통을 보다 오래 사용하려면 오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압 계통의 파손은 부적당한 유체 청결도와 계통 오염 때문에 발생한다. 작은 입자가 유압 구성품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마모 과정이다. 하지만 오일 속에 있는 연마성 미립자의 수에 따라 마모 비율은 증가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압 계통 안에는 계통의 구성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연마성 마모 물질과 공기 내 먼지 입자 등의 연마성 물질이 축적된다. 유압 구성품에서 가공된 마모 표면은 누설을 최소화하고 보호용 오일 막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연마성 입자는 이 가공된 표면 상태를 손상시킨다. 즉, 손상된 표면은 보호용 오일 막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금속끼리의 접촉 및 마모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크기의 연마성 입자들이 추가 생성되면서 심각한 파손을 일으킨다.

또한, 계통 내의 불순물을 깨끗하게 세척하지 못하면 교환 구성품이 반복적으로 파손된다. 종종 유압 탱크 브리더를 통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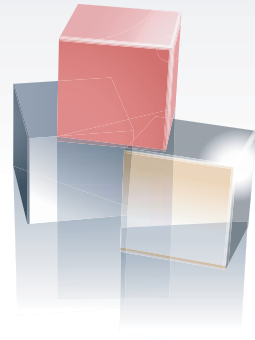
입되는 먼지를 못보고 지나쳐 유압 계통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고효율 브리더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먼지가 공기와 함께 탱크 내로 유입되고, 공기가 밖으로 밀려날 때 남은 먼지로 인해 오일의 오염도가 증가한다.

또한 펌프 또는 액츄에이터(Actuator)가 크게 파손되거나 유압 계통 내로 많은 양의 파손된 조각들이 순환될 때 계통의 오염도 심각해진다. 강철 및 주철 등으로 구성된 부스러기 입자들은 매우 단단하여 구성품을 쉽게 손상시킨다. 이러한 입자들은 컨트롤 밸브 등에 박혀 작동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펌프 및 액츄에이터(Actuator) 등을 통해 순환하면서 추가적인 파손을 일으킨다. 때문에 계통 내에서 파손된 부스러기 등을 세척하는 것은 반복적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계통 내로부터 모든 부스러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스러기는 수리 과정에서 계통을 세척하고 오프-보드 여과방식(off-board filtration)을 이용해 여과시켜도 어느 정도 남게 된다. 계통으로부터 부스러기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성품을 분해해 물리적인 세척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펌프 파손이 종종 발생된다면, 유압 탱크를 세척(flushing)하고 새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계통 오염에 의한 파손은 특히 고성능 피스톤 펌프 및 바이패스 여과 장치를 사용하는 장비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유압 계통에서 이러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지침서에 따라 구성품을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파손된 구성품을 재설치하기 전에 파손의 근본 원인을 찾아 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Tier 4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친환경 엔진 퍼킨스 Tier 4 엔진 출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대세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엔진 시장 역시 변화가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퍼킨스의 친환경 엔진 제품 출시는 주목할 만하다. 더욱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퍼킨스 엔진의 다양한 제품군들을 만나본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과 한국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배기가스 규제가 어느덧 Tier 4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Tier 1에서부터 Tier 3까지 규제가 강화되는 동안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었다.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된 규제에 합당한 엔진을 구입해 장착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 하지만 규제가 더욱 강화된 Tier 4부터는 이런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Tier 3까지의 배기가스 규제는 엔진을 제작하는 회사에서만 인증 받으면 되었다. 하지만 Tier 4에서부터는 엔진을 공급받는 회사도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즉, 엔진과 엔진을 탑재하는 장비가 하나의 세트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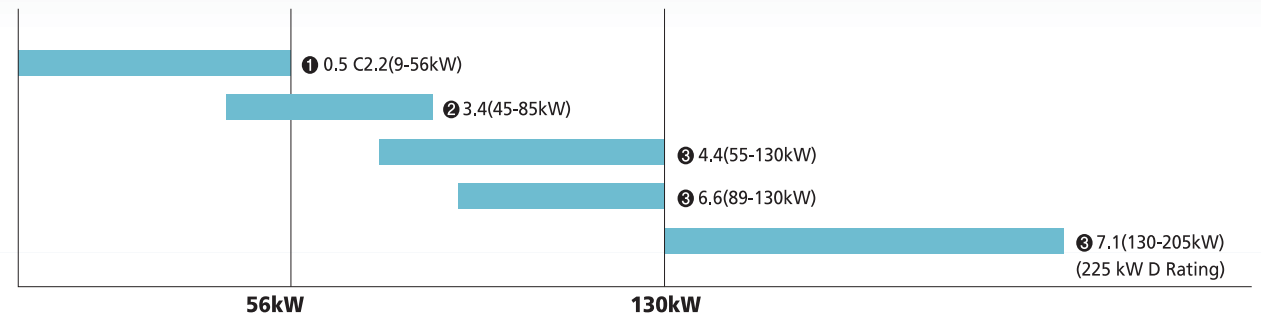
이처럼 세분화되고 복잡해진 절차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인증 받은 장비는 엔진과 함께 배기가스에 영향을 주는 부품을 일정 거리나 시간 동안 보증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해외 수출 시 영향을 미친다. 제품 판매 시 수천 달러씩 보증금을 내는 제도가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한다. 만약 보증기간 동안 배기가스 규정에 어긋난다면 보증금에서 벌금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배기가스 규제가 적용되는 2012년부터는 엔진을 고르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퍼킨스는 현재 공급하고 있는 모든 Rating 범위에 대하여 Tier 4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엔진을 출시한다. 4기통 3.4리터를 신규 개발, 공급하는 것이다.

Tier 4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엔진을 결정하고 개발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개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서둘러 검토하고 개발을 추진해야 할 상황인데, 퍼킨스의 엔진이라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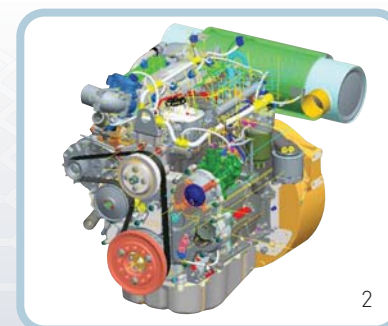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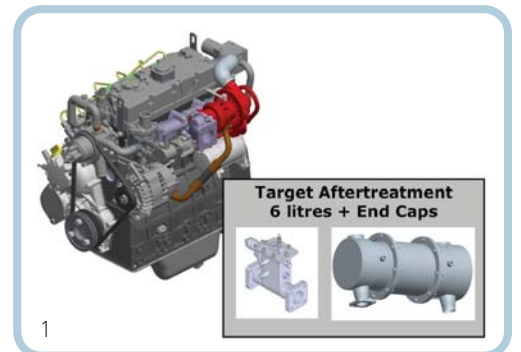
표에서 보듯이 퍼킨스의 엔진 라인업은 0.5~2.2리터급의 400E 시리즈, 3.4리터급의 854E 시리즈, 그리고 4.4~6.6리터급의 1200E 시리즈로 구성된다.

【 퍼킨스 Tier 4 Line Up 】



① 400E 시리즈

기존의 400D 시리즈가 400E 시리즈로 이름이 바뀐다. 이 제품은 전자식 거버너를 채택하고, 기존의 Fuel Injection Pump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또한 2013년 이전에는 후처리 장치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출력은 9~56kW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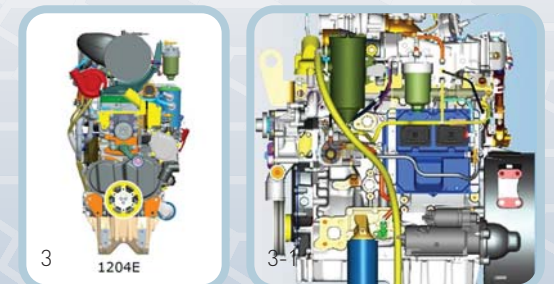


② 854E 시리즈

퍼킨스에서 신규 개발한 엔진으로 4기통에 배기량은 3.4리터. 그런데 이 영역대의 출력을 갖는 엔진은 Fuel Injection Pump로는 배기가스 규제를 맞출 수 없다. 따라서, 커먼레일과 완전 전자식 제어가 채택되며, DPF와 DOC을 선택적으로 조합해 Tier 4에 대응하게 된다. 출력은 45~85kW이다.

③ 1200E 시리즈

1200 시리즈는 기존 1100 시리즈의 Tier 4 버전이다. 4기통의 4.4리터와 6기통의 6.6리터가 있다. 여기에 6기통의 7.1리터까지 출시한다. 출력은 55~205kW이다.



중장비 엔진의 마모를 최소화하는 중장비 전용 엔진오일 **HERO HE-200**

엔진은 중장비의 심장과도 같다. 이 심장이 제대로 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엔진오일. 결국 좋은 엔진오일은 중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최고의 중장비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중장비 전용 엔진오일이 탄생했다. 최고의 중장비만을 공급하는 해인에서 출시한 CH 플러스급 중장비 전용 엔진오일 HERO HE-200이 그것이다.

중장비 엔진은 수십 톤의 압력으로 바위를 깎 수 있도록 그보다 더 높은 출력을 내야 한다. 이처럼 중장비 엔진의 엄청난 하중과 압력 속에서 구성품의 마모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중장비 전용 엔진오일을 사용하는 것. 중장비 운용 비용 중 오일이 차지하는 비용은 겨우 1퍼센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1퍼센트가 전체 운용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비와 수리비를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엔진오일은 중요하다.

이번에 출시된 HERO HE-200은 동급 엔진오일 대비 2배의 내마모, 내하중 성능과 일반 엔진오일보다 월등한 분산 청정 성능을 갖췄다. 그룹3의 최고급 기유를 사용하며 국제 규격 테스트를 통해 중장비 연료 절감 효과를 증명하기도 했다. 중장비 전용 엔진오일 HERO HE-200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장비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줄 전망이다.



【 HERO HE-200의 특징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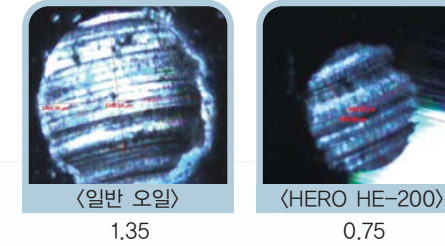
- 2배의 내마모, 내하중 성능
- 월등한 분산 청정 성능
- 그룹3의 최고급 기유 사용
- 연료 절감 효과

◎ 일반 오일 대비 2배의 내마모, 내하중 성능

항목	시험 조건
회전수	1200rpm
하중	80kgf
온도	75℃
시험 시간	60min

평가 항목 : Wear Scar dia., mm

【 마모 면적 직경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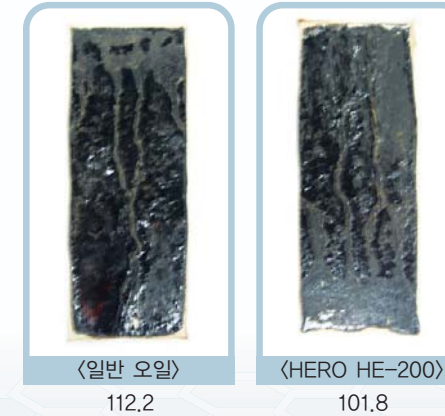


◎ 탁월한 분산/청정 성능

항목	시험 조건
온도(Panels/Oil)	300/100℃
시험 시간	4h
On/Off	45/45s

평가 항목 : Sludge deposit, 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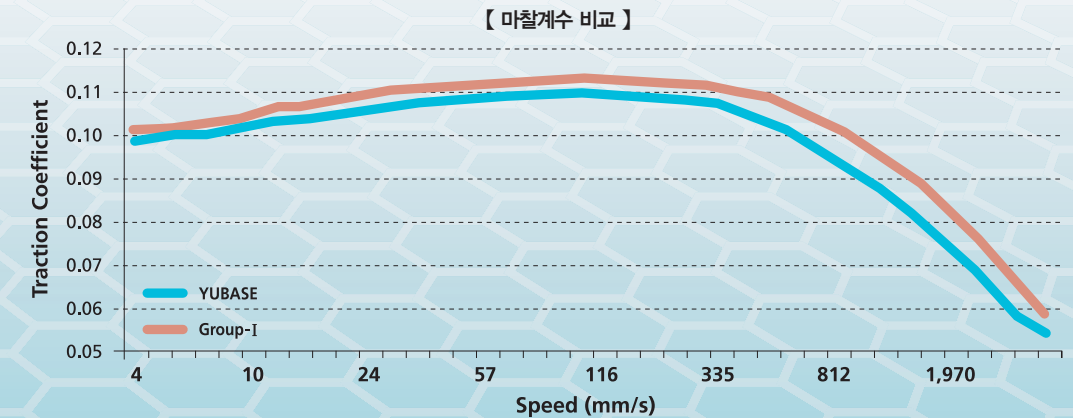
【 슬러지 양 비교 】



◎ 에너지 절감 효과 테스트

항목	시험 조건
하중	49N
온도	120℃
SRR	50%

평가 항목 : Friction coefficient



단, Tier 3 ACERT 엔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10 해인 윤활유 프로그램

HERO HE-200 론칭 캠페인 ▶ HERO HE-200 중장비 전용 오일 출시 기념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간 **10% 할인**

직매출 혜택 ▶ 30일 이상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주문, 배송하는 경우 **5% 할인**

연간계약 프로그램 진행 ▶ 5월과 11월 캠페인을 진행하며, **최소 5%부터 다른 아이템과 함께 계약 시 최대 10%까지 할인**

전국 고객센터 오픈 하우스 ▶ 각 지역 고객센터에서 오픈 하우스 행사 시 방문 고객에게 **5% 할인**

스노보드 동아리 '설국(雪國)' 새하얀 눈 위에서 외치는 사나이들의 우정 예찬

차가운 바람에 코끝이 시리고 손발이 뾰루지 오는 겨울이다. 뜨끈한 방에서 꼼짝하기 싫은 이 계절에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밖으로만 도는 이들이 있다. 설원 위에서 하늘을 나는 짜릿함을 즐기는 '설국(雪國)'의 열혈 청년들이 바로 그들. 스노보드도 타고 우정도 쌓는 그들만의 눈의 나라에 다녀왔다.



Snow Board

평평 내리는 새하얀 눈을 기다리던 순수했던 시절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겨울이 오면 더욱 행복한 사람들. 바로 스노보드 동아리, '설국(雪國)' 멤버들이다. 자타 공인 해인 최고 훈남들이 모여 있는 눈의 나라의 개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본다.

눈의 나라 개국 이념은,

'모이자' 지난 2008년 8월, 해인 속 작은 나라가 개국(?)했다. 정상현 대리를 비롯한 스노보드를 즐기는 열혈 청년들이 모여 눈의 나라, 즉 설국을 세운 것이다. 스노보드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였지만, 이들의 개국 이념은 '보드 타자!'가 아닌, '모이자!'. 다함께 모여 다양한 놀이 문화를 즐기며 끈끈한 정을 쌓는 것이 이 나라의 이념이란다. 눈의 나라의 현재 국민은 20여 명. 유일한 40대 서학원 차장을 제외하고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뤄진 젊은 나라다. 40대라고는 하지만 서학원 차장은 절대 '큰형님'처럼 보이지 않는 동안을 자랑한다. 뜨거운 열정 역시 그를 청년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2



1

1 함께하기에 즐거운 이들. 설국의 열혈 청년들은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모일 때마다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2 안전 보딩을 위해서 꼼꼼히 서로의 장비를 장착해 주는 설국 멤버들.



설국에는 아직 여성 멤버가 없다. 하지만 남자들만 있다고 해서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대 같은 딱딱한 분위기를 예상한다면 큰 오산이다. 또래들이 모여서인지 다들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고 스스럼없이 지내니 말이다. 물론 여느 친구들처럼 가끔 토닥대기도 하지만 그 모습마저 정겨울 정도다.

“다들 성격이 강해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명색이 회장인데 대우 좀 해주라고요~”

정상현 대리의 투정 아닌 투정에서 멤버들 간의 돈독한 정이 느껴진다. 친하지 않다면 대놓고 투정을 부릴 순 없지 않은가. 실제로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눅터지며 다가와 말을 거는 동료들의 모습에서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사나이들만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이처럼 친구 같고 형제 같은 이유는 자주 모여서 함께 땀 흘리기 때문이다. 스노보드 동아리인 긴 하지만 사계절 내내 자주 모여 젊은이답게 활동적인 놀이를 즐긴다. 함께 등산도 하고, 여름엔 캠핑도 가고 볼링도 치며 친목을 다지는 것. 겨울 스포츠 동아리지만, 겨울에만 잠깐 모이고 마는 일회성 모임은 결코 아니라고. 이처럼 자주 모이는 덕분에 겨울이 오면 보다 즐겁게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는지 모른다.

올 초 생긴 사내 동아리 활동 지원제도는 이러한 활동에 든든한 힘을 실어 주었다. 개인당 10만 원씩 활동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전보다 더 자주 모이게 된 것. 덕분에 스키장을 더욱 자주 가게 되니 실력도 쑥쑥 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강원도의 맑은 공기를 마셔서인지 자연스레 건강해지기까지 했다고 입을 모은다. 설국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야외 활동이 주는 이 같은 건강한 즐거움이다. 스노보드 타며 몸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저 멀리 날려버리고, 덩으로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풍광까지 즐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게다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모임의 특성상 보딩 후 저녁에는 술 한잔씩 기울이며 서로 속내를 털어놓다 보니 돈독함은 배가된다고.

1 새하얀 눈보라 속에서도 보딩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는다. 2 비뚤어진 고글을 바로 잡아주는 모습에서 끈끈하고 정겨운 동료애가 느껴진다. 3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 위에 털썩 누워 하늘을 보는 것도 보드의 또다른 재미.



함께하니 즐거움도

실력도 '쑥쑥' 2009년 겨울 첫 정모 장소는 강원도 태백의 오투리조트. 휴일 아침 달콤한 늦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신나는 마음으로 달려 도착하니, 파란 하늘과 상쾌한 공기가 반긴다. 당장이라도 눈 위로 달려가고 싶지만, 일단 허기진 배부터 채우는 게 순서. 배가 든든해야 신나게 즐길 수 있기에 보딩은 맛있는 식사 후 시작하기로 한다. 다들 올해 첫 정모에 대한 기대감을 감출 수 없는 지 식사 시간에도 보딩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자연스레 1년 전 첫 정모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물론 혼자 해냈다는 뿌듯함과 재미가 더 컸지만,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상급자들이 10분 만에 내려오는 슬로프를 1시간 30분이나 걸려서 내려왔으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얼마나 넘어졌는지 옷이 흠뻑 젖어 중간 지점에서 옷을 말리고 내려왔단니까요. 덕분에 실력은 금세 늘었지만요.”

Snow Board

당시 완전 초보였던 신일호 사원이 첫 보딩의 순간을 추억하며 선배들의 '특훈'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마치 사자가 새끼를 절벽에서 밀어 강인함을 키워 주듯 초보자를 최상급자 코스에 데려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한다는 것. 일단 기본자세를 꼼꼼히 가르친 후 담력 훈련을 하는 셈이다. 스노보드가 워낙 속도감을 즐기는 운동이기에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제대로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추억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딩의 순간! 알록달록 보드복으로 갈아입고 하얀 눈밭에 서니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바람까지 거세게 불기 시작한다. 과연 무사히 보드를 탈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물러설 설국인들이 아니다. 자연과 호흡하는 것 역시 스노보드의 매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이제 정말 눈 위를 날 차례다.

서서히 눈 위를 미끄러져 가던 보드에 점점 속도가 붙더니, 바람을 일으키며 멀어져간다. 상급자들은 다양한 묘기까지 선보이며 여유를 부리고 이를 바라보는 초급자들의 눈은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저마다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고, 선배들에게 물어도 봐가며 보드의 다양한 재미를 느끼기 위해 열심이다.

남자들만 있다 보니 때론 묘한 경쟁 심리가 발동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심리는 오히려 보딩의 즐거움과 실력을 키워 주는 긍정적인 자극제가 된단다. 함께하면 행복한 동료이자, 선의의 라이벌. 가끔은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이기기 위해 경쟁하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사람들. 그들의 '사계절 1백 배 즐기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진짜 아름다움의 힘

이런 황당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날 저는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게 보내온 소포였지요. 한집에 사는 남자에게 소포를 받는 기분, 아세요? ‘행복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기분…. 세상이 온통 따뜻해지는 느낌을 그대로 담아 저는 소포를 보내온 사람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돈도 없으면서 웬 보약을?”

그랬더니 세상에!

“보약? 그거 살 빼는 한약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전까지의 행복한 기분은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지요. 남편이 보내온 살 빼는 한약 한 상자를 앞에 놓고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두고 봐! 이런 약 안 먹고도 보란 듯이 살을 빼주고야 말겠다!’

‘살아 있는 시체’ vs

‘예순넷의 S라인’ 당장 스포츠 센터로 달려가 수영과 헬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결심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 체중은 1년 사이에 19kg이나 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운동이라고는 숨쉬기운동밖에는 안 하고 살았던 거죠.

자유형을 한 번 하고는 남들이 뭐라거나 말거나 그냥 걸었어요. 걷는 것도 힘이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물속에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은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다른 라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걸어 다녀서?’

잔뜩 주눅이 든 채 문제의 냄새가 나는 곳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젊은 남자에게 의지한 채 물속으로 들어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름이 확 돋는 거 있죠?

그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살아 있는 시체’ 였어요. 피부는 지금 막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온 미라처럼 창백했고,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그 냄새라니! 소독약 냄새가 어찌나 심한지 그 곁에서 숨을 쉬기도 힘들 지경이었답니다.

결국 수영은 포기해야 했어요. 대신 헬스를 하러 갔지요. 코치가 다가와 이것저것 알려주더군요. 먼저 러닝머신을 20분간 하고, 물 한 컵 마시고, 아령을 한 뒤에 다시 물 한 컵 마시고, 윗몸일으키기를 한 뒤에 마지막으로 다시 러닝머신을 20분간 하라고요.

그 정도야 뭐 껌 씹기지. 저는 얼른 러닝머신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말했잖아요. 일 년 내내 숨쉬기운동만 했다고요. 윗몸일으키기는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아흔, 아흔하나, 아흔둘… 백!”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아주머니는 세상에! 윗몸일으키기를 백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힘 하나 안 들고 말이예요! 아주머니는 윗몸일으키기 백 번을 끝내자마자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내게 물으셨어요. 몇 살이냐고요.

“저야 뭐 아직 젊죠. 아주머니는 몇 살이세요? 윗몸일으키기를 어떻게 백 번씩이나 할 수 있으세요?”

“나? 몇 살처럼 보여요?”

“아무리 봐도 마흔은 넘으신 것 같은데…”

제 입에서 마흔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 아주머니는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학년 4반이라네요?

“6학년 4반? 그럼 예순넷?”

이럴 수가! 예순넷의 할머니가 이토록 완벽한 S라인이라니!

당당한 삶의 비결은


아름다운 내면에 깃든 건강한 몸 그날부터 몇 달간 저는 수영장 과 헬스장을 번갈아 다녔고, 그때마다 ‘살아 있는 시체’와 ‘예순넷의 S라인’을 만났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계속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더군요. ‘살아 있는 시체’인 할아버지는 돈 많은 치과의사였는데, 몸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다 ‘살아 있는 시체’가 되었다는군요. 침대에만 누워 있다가 이러단 정말 죽겠구나 싶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과 함께 수영장에 오고 있대요.

‘예순넷의 S라인’은 몇 년 전만 해도 비만에 당뇨에 관절염까지, 병이란 병은 다 안고 사는 전업주부였다는군요. 그런데 당뇨가 너무 심해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대요.

“살 빠니까 관절염까지 다 낫는 거 있지? 약을 아무리 먹으면 뭐해. 체중 때문에 무릎이 버텨내지를 못하는데…”

오늘도 ‘예순넷의 S라인’은 거기까지만 말하다 저와 눈이 마주지자 얼른 말을 끊으시네요. 알아요, 알아. 안다고요! 젊은 나이에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지 말고 운동하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저는 수영장에 가서 ‘살아 있는 시체’와 함께 물속에서 걷고, 헬스장에 가서 ‘예순넷의 S라인’과 함께 윗몸일으키기를 합니다. 제가 모르는 세월을 이미 참 많이도 살아버린 그 두 분에게서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비결을 배우고 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고, 나를 더 당당하게 하는 삶의 비결이란 건강한 몸에서 비롯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이지요.

지금 제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혹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내면을 가꾸는 고독과 독서의 시간 속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정직한 땀방울의 시간도 함께 채워 넣으시기를…. 

사람 냄새 물씬 나는 ‘휴먼 소설’ 작가로 유명한 이명량은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꽃을 던지고 싶다>, <삼오식당>, <나의 이복형제들>, <위로, 나를 일어서게 하는 선물>, <입술> 등이 있다.

삶의 공간과 사람을 치유하는 해법

Green Therapy

그 · 린 · 테 · 라 · 피

초록식물로 심신을 치유하는 그린 테라피는 무기력해진 인체의 감각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

식막한 도시와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 줄 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어느새 우리 생활 속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삶의 양식을 꼽는다면 단연 친환경적인 삶이다. 굳이 자연 가까이에서 살지 않더라도, 집을 보다 생태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지구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일신의 안위는 물론 지구까지 지킨다 하니 누구나 탐나는 삶의 양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생활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집 안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나온다 한들 바로 이사를 가거나 친환경 자재로 대대적인 공사를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유기농이 몸에 좋다 한들 모든 음식을 유기농으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창한 변화를 꿈꾸는 대신 작고 소소한 실천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바로 집과 사무실 등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린 테라피’ 흐름에 동승해 보는 것이다.

도시의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다 ‘그린 테라피(Green Therapy)’는 그린(Green)과 테라피(Therapy)의 합성어로, 식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료 요법을 일컫는다. 친환경 열풍이 낳은 ‘그린’ 트렌드와 심신의 치유를 도모하는 테라피가 유행과 맞물려 생긴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은 웰빙, 친환경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새집증후군이나 건물의 유해물질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거창하고 비현실적인 방법보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도시의 지나친 경쟁과 소비주의로 물든 생활에서 받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린 테라피는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심 곳곳에 숲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도, 기업들이 옥상에 정원을 조성해 직원들이 잠깐의 여유를 즐기도록 배려하는 것도, 건설 업체들

이 녹지 조성 비율을 높인 고급 아파트를 연이어 내놓는 것도 그린 테라피의 일환이다. 또한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 휴양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나 숲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풍성해진 것, 지리산 둘레길이나 제주도 올레길 등 두 발로 걸으며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도보 여행지가 늘어난 것, 또 이에 발맞춰 도보 여행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 등도 그린 테라피의 흐름과 맥을 함께한다.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그린 테라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베란다에 정원을 가꾸거나 집 안 곳곳에 쓰임을 고려해 관엽식물이나 허브를 놓기도 하고, 손수 채소를 키워 먹기도 한다.

그린 테라피,

싱그러운 생명력을 부여하다 그렇다면 그린 테라피의 치유 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 준다. 도시의 숲이나 아파트 녹지는 산소와 음이온, 피톤치드 등을 뿜어내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이런 성분뿐만 아니라 특유의 싱그러운 향, 이파리와 나무기둥의 자연 색감, 천연의 질감 등이 어우러져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준다.

한편 실내 공간에서는 유해 물질과 냄새를 제거하여 공기를 정화시켜 주고, 전자파도 막아 준다. 특히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해 주기 때문에 지금같이 건조한 겨울철에는 더욱 유용하다. 식물을 동물 모양으로 만든 관상용 작품인 토피어리(Topary)도 수분을 머금은 이끼로 만들어진 것이 많아 천연 가습기 역할을 톡톡히 한다.

아울러 천연의 그린 컬러가 주는 효과도 크다. 싱그러운 그린 컬러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눈의 피로를 덜어 주는 것은 물론, 긴장을 풀어 주고 정서를 편안하게 해 준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그린 컬러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단, 이러한 효과들은 실내의 5~10%를 식물로 채워야만 나타난다.

그린 테라피는 생활 터전을 옮기거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필요가 없으므로 무척 경제적이다. 약간의 노력과 시간, 비용만 들이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숲으로 삼림욕을 떠나거나 도보 여행길에 오르는 것도 그렇고, 집이나 사무실을 공간별로 차근차근 가꾸어 나가는 것도 그렇다. 여행이건 일상이건 그린 테라피의 흐름 속에서 숨 쉬며,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보자. 스스로를 치유하는 일은 상처를 보듬는 것, 나아가 심신을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tip

>> 이럴 땐 이런 식물

새집증후군이 걱정될 때 - 테이블야자, 아이비, 벤자민 고무나무, 아로우카리아
공기가 답답할 때 - 율마, 아글라오네마, 인도 고무나무
전자파를 차단하고 싶을 때 - 산세베리아
부엌의 유해 물질을 없애고 싶을 때 - 스파트필름, 스킨답서스, 거베라

신발장이나 목욕탕의 냄새가 심할 때 - 스파트필름, 관음죽, 안스리움
담배 냄새가 괴로울 때 - 네프롤레피스(보스톤 고사리)
쾌적한 습도를 유지하고 싶을 때 - 네프롤레피스(오블리테라타), 아레카야자, 호접란
현관이나 베란다의 오염 물질을 없애고 싶을 때 - 벤자민 고무나무

겨울철 허리 건강 지키기 몸은 따뜻하게, 허리는 튼튼하게

겨울은 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힘든 계절이다. 움츠러든 몸과 두껍게 겹쳐 입은 옷 때문에 둔해져 허리를 빼끗하거나 넘어지면서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미리미리 조심하고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하는 허리 건강의 비결을 생활 습관을 통해 알아본다.

겨울철에는 근육과 관절들이 긴장되고 경직되기 때문에 유연성과 탄력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몸의 움직임이나 무게의 부하에 대해 근육이 뼈를 대신해서 받아주어야 할 힘이 그만큼 적어진다.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오고 디스크 내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평소에 허리가 약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손상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로 앉아 있다가 움직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는 행동 등을 조심해야 한다.

대표적인 허리의 질병으로는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허리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측만증 등으로 인해 허리 통증과 다리의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 통증,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에서는 정도에 따라 치료보다 안정과 휴식이 더욱 중요한 경우도 있고, 허리 보조기 등을 착용해 직접적인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급성기에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의사 혹은 한의사와 상의하여 종류와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바른 자세, 바른 습관

튼튼한 허리를 만든다 평소에는 어떻게 허리를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만성적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4명 중 1명은 자세 불량이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바른 자세는 허리 건강에 중요하다. 오래 앉는 자세는 어떤 경우든, 허리에 좋지 않다. 차라리 서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특히 쿠션 좋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고 앉는 것이 가장 나쁘다.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려 직접 힘을 쓰는 것보다는,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디스크 내의 수분은 흡연으로 인해 탈수화되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흡연은 금물이다.

퇴근 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경직된 근육이 이완되어 그 어떤 약보다도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목욕은 피로물질인 조직의 젖산 농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피로 회복에 도움이

“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경직된 근육이 이완되어 그 어떤 약보다도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다. 겨울철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로는 모과차, 오가피차, 두충차, 쑥차 등이 있다. 틈틈이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

된다. 특히,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상열하한(上熱下寒)’의 상태 즉, 상체의 열기가 아래로 전달되지 못하고, 하체의 냉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해 생기는 증상들(대표적으로 허리 통증과 다리의 냉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겨울철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로는 모과차, 오가피차, 두충차, 쑥차 등이 있고, 대표적인 한약 처방으로는 쌍화차, 육미지황탕 등이 있다. 모과차는 근육을 부드럽게 하여 허리 통증과 신경통에 좋고, 감기 예방 효과도 있다. 오가피차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관절의 통증과 근육경련을 완화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쌍화탕은 근육의 피로를 풀어 주고 체력이 저하된 경우 기혈을 보충해 주며, 육미지황탕은 신(腎)기능을 보강하고 신기능과 관련된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대표적인 차다.

이와 함께 틈틈이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유연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도록 근육을 골고루 이완시키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요통체조가 좋다. 물론, 수영, 걷기, 조깅, 등산 등의 유산소운동은 기본적으로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체력을 증진시키므로 평소에 꾸준히 병행하여야 효과가 커진다. 그러나 편측운동인 볼링이나 골프 등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고, 자전거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좋지 않다.

허리병은 오랫동안 잠재되었다가 어떤 순간을 계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명심하고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예방책이라 하겠다. 📺

Health Care

STEP



tip >> 치료는 어떻게?

허리뼈와 골반의 변위가 있는 경우 교정을 위한 추나요법을 시행하거나, 정체된 기(氣)의 흐름을 소통시키는 침 치료, 관련된 장부기능을 강화시키고 연부조직 및 골관절 구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한약물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키고,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한 견인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며, 정도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동장군을 이기는 뜨거운 열정의 현장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현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달리는 그들 앞에선 추위도
'꿈작 마!' 인 것이지요. 뜨거운 열정으로 차가운 겨울을 이기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현장의 공기는 뜨끈뜨끈합니다.

Sketch



▲ 연료 도난 방지를 위해 연료 탱크나 유압 탱크를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견고한 모습에서 고객의 장비 보안까지 책임지겠다는 굳은 의지가 묻어납니다.

▼ 100년 만에 내린 폭설로 예술의전당 앞 도로가 온통 눈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차들이 꿈쩍할 수 없는 상황, 캐터필라 스키드도더가 출동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 파쇄기를 들어올린 캐터필라 256C. 마치 포효하는 호랑이를 연상케하지 않나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듯한 모습에서 동급 최강의 파워가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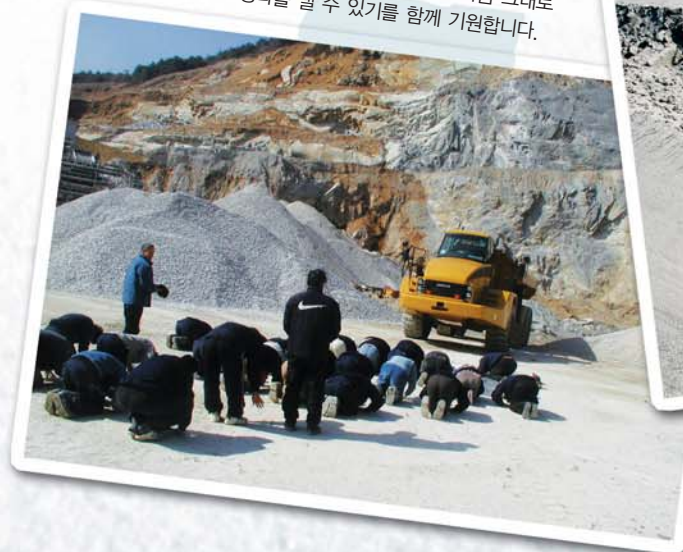


▲ 노을이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현장에서 빛을 밝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그들의 모습이 눈부신 이유는 단지 헤드라이트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흐린 겨울날 소풍이라도 가는 것일까요? 반듯하게 열을 맞춰 한곳을 향해 있는 굴삭기의 모습이 재미납니다.

▼ 작업이 무사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큰절하는 모습이 사뭇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아무 탈 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 공룡 발자국도 아니고 이 발자국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비와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나란히 같은 길을 걷는 발자국이기도 하고요.

이 지면은 독자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았던 기계, 혹은 그곳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인상적인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에서 느꼈던 단상을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해상도가 좀 떨어져도, 멋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보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해인 추천 도서를 보내 드립니다(독자 엽서 참고). **접수처** (주)해인 사보편집실 02-3498-4634 / jyyoon@haein.com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6 3층 윤지연 앞

01 2009 광물자원 선진화 포럼 캐터필라 장비 전시

(주)헤인은 지난 11월 14일, 일산컨텍스에서 열린 2009 광물자원 선진화 포럼 'Future Base & eCo mine'에 참가했다. 지식경제부 주관, 한국광물공사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며 전국 광물업체와 골재업체들이 참가하는 이 행사에서는 세미나를 통한 광물자원의 투자, 개발, 관리 등에 대한 최신 정보와 광산 장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헤인은 이 행사에 캐터필라 휠굴삭기와 휠로더, 굴적 트럭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02 중 소형 발전기 판매 증진을 위한 육상 발전기 대리점 개설

국내 해상엔진의 보급을 위하여 전국 각 지역에 해상엔진대리점(AMD)을 운영해 왔던 (주)헤인의 파워시스템사업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육상 발전기 대리점을 추가 개설하기로 했다. 현재 육상/해상 엔진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의 '아세아파워테크' 외에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전북 지역을 담당할 '에너지파워시스템'과 영남권 및 전남 일원 지역을 담당할 '해성파워텍' 등 총 2개의 신규 대리점이 지정되었다. 이들 대리점은 고품질의 중 소형 육상 발전기 공급은 물론 고객 감동 서비스로 국내 고객들에게 찾아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주)헤인 파워시스템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상 발전기 대리점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03 2009 국제물류 및 건설기계산업전 참가, 캐터필라 장비 전시

(주)헤인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에 걸쳐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된 '2009 국제물류 및 건설기계산업전'에 참가했다. 캐터필라 M313D 3단봉 휠굴삭기와 트랙형 스kidder 277C DLX 장비를 전시하고, 4대강 정비 사업에서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굴삭기, 휠로더, 협지형 트럭 장비 등을 홍보했다. 국내 건설기계 부품 및 건설 중장비의 메카로 불리는 창원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건설기계 부품 업체 관계자들과 경남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들이 헤인 부스를 찾아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건설기계 부품 업체 관계자들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건설기계 품목과 캐터필라 장비에 사용된 부품을 비교하며 문의하였고, 경험에서부터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굴삭기 전용 운전석까지 꼼꼼히 살피며 그 우수한 품질에 큰 호응을 나타냈다.



04 (주)헤인 새로운 홈페이지 오픈

(주)헤인은 지난 11월 16일, 새로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창립 50돌을 맞아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통해 (주)헤인은 고객에게 더욱 풍부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고객중심의 메뉴와 동영상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고객들이 정보를 더욱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웹사이트는 블루와 그레이를 기본 컬러로 하여 취급 브랜드들의 특징점을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간결하면서도 가독성을 극대화시킨 디자인을 채택했다. 특히 기업 홍보 중심의 메뉴와 제품&서비스 중심의 메뉴를 분리한 포맷으로 구성하여 헤인의 브랜드와 기술력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고객중심적 시각에서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주)헤인은 향후 온라인 마케팅 창구인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 홍보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5 (주)한진 324DL 장비 공급 계약

(주)헤인 장비사업본부 골재산업팀에서는 (주)한진의 원료 하역 현장(포스코 포항, 광양)에 총 10대의 324DL 굴삭기 및 각종 어태치먼트(attachment)를 공급했다. 본 장비는 원료 선 저장고 내부에서 각종 원료를 하역하는 작업 과정에 투입되는 것으로, 도저나 트랙로더와 같이 하역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미 10여 대가 넘는 캐터필라 도저 및 트랙로더를 수년 동안 본 현장에 사용해 온 (주)한진은 이번 장비 투입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06 (주)에스엔지 대형 도저 및 트랙로더 계약

(주)헤인 장비사업본부 골재산업팀에서는 (주)에스엔지 포항 현장에 대형 도저 D9T, D10T 및 트랙로더 973D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장비는 해당 현장 내 슬래그 처리 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헤인에서는 제철소, 매립장, 스크랩에 특화된 전용 캐터필라 장비들을 고객이 원하는 모든 작업 현장에 제공하며 생산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HAEIN NEWS

07 삼성테스코 융하인리히 물류장비 관리자 교육

(주)헤인 산업장비사업부문에서는 국내 융하인리히 물류장비 최대 고객사인 삼성테스코의 목천, 밀양, 함안 센터 장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물류장비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천안서비스센터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융하인리히사의 아시아 지역 매니저인 Daniel Schaefer가 참석하여 융하인리히 물류장비의 고유 기술과 삼성테스코 물류 센터에 적용 가능한 신모델들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천안서비스센터 투어를 시행함으로써 삼성테스코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보다 돈독한 파트너십을 다졌다.



08 (주)헤인, 신성대학과 산학 협약 체결

지난 12월 9일, (주)헤인과 신성대학(충남 당진 소재)은 우수한 산업 인력 양성과 보다 나은 지식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산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산학 협약을 통해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또한 장학금 및 장비 기탁과 기술 교류를 통해 산학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현장 실습을 실시하여 우수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 협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09 (주)헤인 부산고객센터 양산 이전

지난 12월 21일, (주)헤인 부산고객센터가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로 이전하였다. 이번 이전은 영남 지역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부산고객센터는 2010년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새로 이전한 부산고객센터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주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97번지 (주)헤인 부산고객센터
전화 : 055) 380-4500 (대)
팩스 : 055)385-9668 / 362-9668



사보 <헤인人>을 애독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더 좋은 책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날이 세련되어지는 디자인과 책 내용에 흐뭇해집니다. History 코너를 읽다 보니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드네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누비며 세계적인 업체들보다도 더 호평 받았던 캐터필라 장비. 뭐니 뭐니 해도 건설 장비는 캐터필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헤인의 밝은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 박종원 고객님

● 24년이란 세월 동안 친부모도 모르고 살다 한국에 온 인연으로 가족을 되찾게 된 알렉스 씨의 가족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제 가슴이 다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헤인 사보에도 가족과, 때론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 정보를 정기적으로 신는다면 어떨까요? 인터넷 정보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저기에서 온 사보에서 스크랩을 해 두곤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 송진호 고객님

● 남편이 헤인 대리점에 근무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부창부수라고 하던가요? 요즘에는 저도 길을 건다가 노란색이 보이면 혹시 남편 회사가 아닌가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노란색의 캐터필라 글씨를 보면 “아빠 회사

다!”하며 좋아합니다. 지난번 사보에는 남편 모습이 실렸더군요.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고맙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 서미해 고객님

● 안녕하십니까? 헤인 사보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보에 실었으면 하는 게 있어 말씀 드립니다. 첫째로, 굴삭기, 페이로더 장비들 중 평소 고장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예방 정비 및 정비 발생 시 정비 요령이나 순서 등을 기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유압, 엔진, 전기 등 정비 분야별로 정비사 교육을 시행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 남구 괴동동 / (주)한중 김상출 고객님

● 아직 아무 실적도 없이 전적만 부탁하며 열심히 뛰고 있는 한 회사의 신입사원입니다. 지면을 통해 늘 형님같이 대해 주시는 헤인 파워시스템사업본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제 고향이기도 한 당진에 고객 센터를 오픈했다는 소식을 접하니 친근하고 반가운 감정이 배가되네요. 열심히 노력하여 (주)헤인의 좋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헤인 파이팅!!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주)바다테크 지남훈 고객님

※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축 하 합 니 다 Congratulation

- 결혼을 축하합니다 고객만족본부/기술서비스팀 대리 이도원, 파워시스템사업본부/EPST팀 대리 김대희, 고객만족본부/기술서비스팀/엔진파트 주임 황상순
 - 자녀 출생을 축하합니다 장비사업본부/건설임대팀 사원 홍현민, 고객만족본부/서비스운영팀/장비서비스파트 차장 백정기, 고객만족본부/서부지역센터/광주고객센터 과장 박종훈
 - 승격을 축하합니다 기획조정본부 부장 원종식
 - 입사를 축하합니다 파워시스템사업본부/MPS팀 대리 이선엽, 파워시스템사업본부/에너지사업팀 대리 이동열, 장비사업본부/렌탈및중고팀 반장 권순로
- 재무본부/재무팀 사원 양희정, 재무본부/재무팀 사원 이효상, 산업장비사업본부 대리 박명규, 기획조정본부/경영지원팀 차장 김 욱
- 파워시스템사업본부/에너지사업팀 부장 백정현, 파워시스템사업본부/에너지경영팀 부장 장지창, 기획조정본부/경영지원팀 과장 박승근
- 고객만족본부/서비스운영팀 사원 윤성백, 기획조정본부/경영지원팀 대리 김영민, 기획조정본부/경영지원팀 과장 박재석



본 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 02) 3498-4500 | 천안서비스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55번지 제2공단 2-1블럭 / 041) 559-1500 서비스콜센터 1577-3872
고객센터 영등포 02) 2634-4800 북부 031) 826-0966/8 남부 031) 667-2062/3 인천 032) 761-0564/8 동해 033) 522-5211 제천 043) 643/644-3307 대전 042) 531-6518/9
전주 063) 245-1777/8 광주 062) 945-5811/5 광양 061) 793-1491/2 당진 041) 353-3151 부산 055) 380-4500 대구 053) 521-8072~4 전주 055) 852-8811 포항 054) 262-7551/2



20년 세월을 함께한 빛나는 조연, 245BL

◎

흔히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멋지게 주연을 빛내 주는 이들을 뜻하는 말이지요.
대동광업에서 1989년 구입한 245BL은 석산의 '빛나는 조연'입니다.
벌써 20년째 원석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채취한 원석을 묵묵히 트럭에 쌓으며 자리를 지켜왔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20년도 제 스스로 빛나기보다
든든한 조력자의 모습으로 숨은 가치를 빛낼 것입니다.

◎

고객사 : (주)대동광업 업종 : 제조, 건설 외(비금속 광물 외) 장비 보유 현황 : 769C, 769D(4대), D11R, 980C(2대), 980G, 375DL, 365BL(2대), 245BL(2대), M313D



불모지를 희망의 길로 바꾼 노란 물결!



1960~70년대,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헤인은 그 역사의 현장을 참으로 분주하게 누비고 다녔습니다.

2010년,
반세기 건설기계名家 헤인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50年史 제작에 열정을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간직하고 계신 소중한 사료를 찾습니다.

☞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는 헤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내주세요.

Ex. 건설 및 토목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사진, 행사 및 사건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
제품 사진, 광고 및 보도자료, 브로슈어, 도서, 간행물, 기념품, 문서 자료 등

·제 출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3층 사사편찬실

02) 3498-4634 | jyyoon@haein.com
www.haein.com

자료를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착공식 현장